

안전관리의 핵심은 '화합'과 '협력'

“안전은 모두가 함께할 때 얻을 수 있는 선물”

수도권 시민들의 휴양지로 각광 받아온 아름다운 해변도시 태안이 미래 대한민국 산업을 뒷받침할 국내 최대 에너지 클러스터로 변신 중이다. 380MW급 석탄가스화복합발전기(IGCC)와 1000MW급 석탄 화력발전기(2기)가 각각 2015년과 2016년에 준공될 예정에 있는 것이다. 대규모 국가기반시설 건설현장인 만큼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

강광주 한국서부발전(주) 태안건설본부 안전품질팀장



국서부발전(주) 태안건설본부는 무엇보다 안전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강광주 안전품질팀장이 있다. 무재해 무사고 준공으로 국민들의 편안한 생활과 튼튼한 산업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싶다는 그를 만나봤다.

취재 정태영 기자 anjty@safety.or.kr

안전의 성패는 의식수준에 달렸다

강광주 팀장이 안전관리를 이끌어감에 있어 가장 중시하는 것은 '교육'이다. 그는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선제적으로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관리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과 비상대응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그의 신념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지난해 9월부터 태안발전본부 내에 건립·운영 중인 '종합안전체험장'이다. 종합안전체험장에서는 3D 영상 등 각종 첨단 미디어를 통해 11가지 재난재해 상황을 실제 체험해 볼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그는 본부 직원과 도급사 직원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체험교육을 시행해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세세하게 정립된 이곳의 재난 대응 매뉴얼도 그의 맘과 열정이 배인 결과물 중 하나다. 그는 화재, 태풍 등의 재난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을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모의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소통'이 안전의 기본이다

'화합'과 '협력'도 강광주 팀장이 펼치는 안전관리의 핵심 요소다. 강 팀장에 따르면 안전은 소수의 전문가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안전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모두가 공감을 하고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자율적으로 안전활동에 나서야만 무재해, 무사고를 이룰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에 대해 누구나가 편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안전을 주제로 언제 어느 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이에 그는 안전제안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근로자 간 친목도모를 위해 스토리텔링 디너간담회(팀 간 미팅)를 실시하여 타 처·실, 부서 간 업무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수렴, 개선해 나가고 있다.

또 '모바일 안전실천방'의 도입 운영을 통해 안전이 늘 대화의 화두에 서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스마트폰 앱인 '카카오톡'을 활용해 공사 관련자 모두가 유해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는 즉각적으로 위험요소를 제거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외강내강(外剛內剛)의 안전관리가 목표

강광주 팀장의 향후 목표는 현재 운영 중인 안전 관리 제도 및 규정을 더욱 가다듬고 현장에 최적화시키는 것이다. 그는 갑작스런 신규 제도나 활동의 도입이 오히려 현장에 혼란을 주고 안전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때문에 현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아직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부분을 찾아 개선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그는 현장 내의 시선으로만 안전관리를 펼쳐서는 숨겨진 위험요소에 무감각해질 수도 있는 점을 감안,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외부 기관과의 다중 안전점검을 더욱 강화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견고히 내부를 다지고 외부의 힘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겠다는 그의 계획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지 기대가 모아진다. ☺

